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 피정

4월 20일 호스피스 팀원의 소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총 30여명의 호스피스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구례군 '피아골 피정의집'에서 '자기 십자가' 라는 주제로 피정을 하였다. 이날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에 대한 강의와 묵상을 통해 호스피스 환우를 돌보는 팀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재가암환자 야유회



5월 15일 대전 중구, 동구, 서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본원 재가암방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우들에게 '대전오월드'에서의 야유회를 통하여 행복한 삶의 추억을 제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모 환우분은 평생 소풍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다.

부산대병원 부산지역암센터

▶제9회 부산지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개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지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본원 15동 9층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본원

과 부산광역시, 부산가톨릭대가 주최하고 부산지역 암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부산지역 4개 의료기관 및 10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달의 호스피스 천사들', '안화의료 서포터즈' 선정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팀원의 정신적, 육체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아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 및 보호자 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월 안화의료센터 최다 환자 진료레지던트 1명, 최다 임종 지키미 간호사 1명, 최고 출석자원봉사자 한팀 요일조를 '이달의 호스피스 천사들'로 선정하여 포상 및 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화의료 서포터즈" 포상행사는 2012년 호스피스 안화의료 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많은 호스피스 환자를 의뢰한 원내 주치의 및 수간호사 각 1인을 '안화의료 서포터즈'로 선정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본원 소화기내과 김동욱 교수, 소화기내과병동 최은정 수간호사가 선정되어 병원 상품권을 포상하고, 안화의료센터 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하는



등 호스피스 홍보에 앞장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부산성모병원

▶안화의료센터 주최 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특강 실시
4월 27일(금) 오후 5시 본원 4층 베네딕도홀에서 '삶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부산교구 맑은 하늘 피정

의 집 원장 박갑조 신부님을 모시고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주민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통증캠페인 실시
매년 5월 국립암센터 주최로 실시하는 통증캠페인을 올해도 실시하였다.



“통증을 말합니다”

“암성통증, 조절될 수 있습니다” 라는 케치프레이드를 걸고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옥외 캠페인으로 6월 9일(토)9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제6권역 호스피스팀원이 함께 개최한 행사에 호스피스센터장을 비롯한 팀원, 자원봉사자 20여명과 가족들이 참석하였으며 내 캠페인은 병원 1층 로비와 10층 완화의료센터에서 직원과 일반인,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호스피스를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과 물티슈, 부채 등을 배부하였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봄소풍



5월 15일 환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올해는 총 7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봄소풍을 다녀왔다. 의료진, 간호사, 봉사자들의 풍성한 볼거리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었고 참여 환자를 유도하였지만 멋쩍은지 잠시 조용한 분위기가 흐르던 순간, 용감하게 나타난 오정자님께서 “숨어 우는 바람소리”를 열창하며 노래 솜씨를 보여주셨다. 1시간여 동안의 행복한 나들이를 마치고 모두 무사히 귀원하였으며,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국제교류프로그램



5월 22일 호스피스 팀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온 자원봉사자를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대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교류를 통해 언어와 인종과 국경은 호스피스활동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는 호스피스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 할 수 있었다. 3박 4일 일정으로 국내 호스피스 4개 기관(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모현의료센터, 갈바리의원), 대만 호스피스 3개 기관(National Taiwan Hospital University, Taichung Veterans general Hospital, Mackay Memorial Hospital)이 참여하였으며, 대만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 11월에는 한국 호스피스 참여기관 자원봉사자들이 대만을 방문하여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진행 기관: 한국메리포터 호스피스영성연구소, 대만호스피스재단)

성가롤로병원

▶백운산 휴양림 사별가족아우회

5월18일(금) 광양 백운산 휴양림으로 사별가족 아우



회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 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서 돌봄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사별의 아픔과 슬픔을 자연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자 마련되었다. 백운산에 도착하여 황룻길을 걷고, 점심식사를 맛있게 드신 후, 레크레이션, 마음 나눔, 소망풍선편지 띄우기 순으로 진행 되었다.

가족들의 남은 삶 또한 소중하기에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별과정을 잘 적응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매년 5월이면 사별가족야유회를 다녀온다.

▶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 활짝 핀 생명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복음 15장 5, 9절)라는 성경 말씀처럼 사랑 안에 머물러 영원한 안식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동 리모델링을 하였다. 10층 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 들어서면 입구 아치에 탐스런 포도열매가 그려져 있고 생명나무들이 차가운 벽면을 가득 메웠으며 창가 쪽에 휴게 공간을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전보다 따뜻해지고 평화로운 병동 분위기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히 머무르며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란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소원들어주기 행사

4월 12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은 직장암 말기 최용진(빈첸시오)씨의 요청으로 아내를 위한 결혼식을 준비하였으며, 최용진(빈첸시오)씨는 “병간호를 하느라 손이 아주 거칠어졌던데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지나간 세월이 아깝지만 앞으로 재미나게 삽시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예쁜 벌을 하나 사서 기다릴게요.”라고 약속하며 원목팀 김영택 신부의 주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하계 학술대회 사례발표

7월 6일 열린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본 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미팅’에 대해 발표하여 본원 호스피스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성이시들 복지의원

▶어버이날 행사



5월 어버이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어린이집 친구들이 웃음전도사 역할을 해 주었다.

천사같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환우분들은 밝은미소와 함께 음악과 율동으로 리드미컬하게 재롱잔치가 어우러져서 저절로 통증완화가 되는 듯 했다.

집중력과 협응력, 친밀감과 연상작용을 위한 '수수깡배'요법 프로그램으로 고향생각과 소중한 친구들,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전달 해 주는 시간이 되었고, 직원 프로그램으로는 킴스이고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인의 자아상태를 알아봄으로써 직

원-환자-가족관계에 있어서 관계성과 의사소통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평화 호스피스

▶12차 호스피스 교육실시



호스피스12차 교육을 4월 9일 ~ 5월 21일(7일간) 130명이 교육을 실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성바로로 가정호스피스 센터

▶설립 5주년 기념행사

성바로로 가정호스피스 센터는 샬트르 성 바로로 수녀회의 기본 정신인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돌봄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인간적, 영적 품위를 높이고, 아울러 호스피스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 3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다섯돌을 맞이하였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총에 감사드리며, 환우와 가족분들을 위해 그동안 함께하였던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분들에게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든다. 함께 체험했던 일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소중한 보물로 기억될것이다. 주님의 보호와 많은 천사협조자들의 수고 덕분에 의미 있고 보람찬 사랑으로 걸어 온 다섯 돌이었다. 이한택 주교님 주례로 성모의 밤과 2부에서는 사랑나눔 및 친교의 시간으로 자축하였다.



7월 11일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정복례 회장으로부터 노유자 센터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 지면부족으로 인하여 보내주신 소식의 일부를 실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